

삽입 텍스트를 통한 주체 구성의 양상 연구

— 송영과 안희남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유 채 영*

요약

본 연구는 1930년대 중후반 한국 단편소설에 나타난 삽입 텍스트 기법을 중심으로, 송영과 안희남 문학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상이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송영의 소설에서 삽입 텍스트는 '읽기' 행위를 통해 타자와의 소통을 복원하고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연대의 서사를 구축한다. 그의 인물들은 저자의 부재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며 '독자의 탄생'을 구현한다. 반면 안희남의 소설에서는 '쓰기' 행위를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며 자기 소외를 심화시키는 고립의 서사를 형성한다. 그의 인물들은 현실 문제의 해결 대신 글쓰기 행위 자체를 강박적으로 되풀이하는 '반복강박'의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롤랑 바르트의 독자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보조적 분석 도구로 활용하되, 텍스트의 서사 분석과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맥락을 중심 축으로 삼는다. 분석 대상은 송영의 「아버지」, 「능금나무 그늘」, 「월파 선생」과 안희남의 「상자」, 「번민하는 잔류씨」이다. 이를 통해 삽입 텍스트가 1930년대 중후반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성을 구성하고 해체하는 역동적 장이었음을 밝히고, 카프 해체 이후 문학의 스펙트럼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주제어: 삽입 텍스트, 송영, 안희남, 독자의 탄생, 반복강박, 1930년대 소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송영과 독자의 탄생적 읽기
3. 안희남과 반복강박적 쓰기
4. 나가며

1. 들어가며

1930년대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깊은 균열을 드러낸 시기이다. 1935년 5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공식 해체는 단지 하나의 문학 단체가 사라진 것을 넘어, 사회 변혁이라는 거대 담론과 집단적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문학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보여줬다.¹⁾ 이로 인해 1930년대 중후반 문단은 정치적 목적성을 앞세운 직접적 발화가 불가능해지자 작가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집단적 투쟁에서 인간의 내면과 개인의 심리에 대한 탐구로 전환했다.²⁾ 이러한 전환은 서구 모더니즘 문예사조의 유입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되었다. 도시화와 자본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근대적 개인이 겪는 소외, 불안, 권태, 분열된 자의식 등이 문학의 중심 주제로 떠올랐다.³⁾

이러한 문학사적 전환기에 한국 단편소설은 편지, 일기, 소설 속 소설과 같은 ‘삽입 텍스트’, 즉 소설의 주 서사와 구분되는 독립적 형식의 텍스트가 서사 전면에 부상하는 특징을 보인다.⁴⁾ 이는 단순한 문체적 유행

1) 1935년 5월 카프의 공식 해체는 1931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검거 사건의 결과였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328-336면 참조.

2) 권영민, 위의 책, 445면.

3) 권영민, 위의 책, 456-457면 참조.

4) 본고에서 ‘삽입 텍스트’는 소설의 주 서사와 구분되는 독립적 형식의 텍스트(편지, 일기, 소설 속 소설, 시 등)를 지칭한다. 이는 서술자의 언어가 아닌, 작중 인물이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별도의 문자 텍스트로서 서사 내부에 삽입되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이 처한 주체성의 위기를 탐문하고 형상화하기 위한 필연적 서사 전략이었다. 편지·일기·소설 속 소설 등 삽입 텍스트 형식은 1910~20년대 한국 근대소설에서 이미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며,⁵⁾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중후반에도 이어졌다. 당대 작가들은 삽입 텍스트를 통해 현실의 억압을 우회하고, 분열된 내면을 투사하며, 관계의 단절과 회복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송영과 안희남은 삽입 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체 구성의 문제를 탐구했지만, 그 방향성은 극명한 대립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삽입 텍스트라는 서사 장치를 매개로 송영과 안희남의 단편소설에 나타난 주체 구성의 상이한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송영의 소설에서 삽입 텍스트는 주로 ‘읽기’를 통해 타자와의 소통을 복원하고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연대의 서사를 구축한다. 그의 작품에서 텍스트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사이의 단절을 메우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독자는 저자의 부재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로 탄생한다. 반면 안희남의 소설에서는 ‘쓰기’를 통해 자기 내면에 침잠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고립의 서사를 형성한다. 그의 인물들에게 글쓰기는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 반복 속으로 침잠하는 강박적 행위가 된다.

5)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351-381면; 안미영·김화선, 「이태준 장편소설에 나타난 ‘편지’의 기능과 한계」, 『어문연구』 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75-295면;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 양식 연구(1)-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57-89면;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 양식 연구(2)-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37-163면; 김성수, 「근대 초기의 서간(書簡)과 글쓰기교육·독본·책독·서간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161-190면; 김성수, 「근대 서간(書簡)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4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85-121면; 장인수, 「1920년대 ‘편지’의 배치와 감수성의 문학」, 『한민족문화연구』 42호, 한민족문화학회, 2013, 437-470면 등이 있다.

이 두 작가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활동하면서도 문단적·작가적 배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송영은 카프 출신 작가로서 조직의 해체와 전향이라는 정치적 좌절을 경험한 후에도, 개인의 고립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문학을 통해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⁶⁾ 반면 안희남은 카프와 같은 조직적 이념의 배경 없이, 식민지 도시의 소시민 지식인으로서 겪는 실존적 무력감과 불안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작가군에 속한다.⁷⁾ 여기서 안희남의 문단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안희남은 카프와도, 모더니즘 문학을 지향한 구인회와도 거리를 두었다. 이 점에서 카프 계열의 송영과 비교할 때 안희남은 오히려 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두 작가의 비교는 카프 해체 이후 분화된 1930년대 중후반 문학장의 두 극단, 즉 연대를 지향하는 서사와 고립 속에 함몰하는 서사 사이의 긴장을 조명하는 데 효과적인 비교론적 틀이 된다.⁸⁾

기존 연구는 송영과 안희남을 각각 개별 작가론의 범주에서 다루거나, 송영을 계급문학의 연장선에서, 안희남을 신변소설의 틀 안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송영에 대한 연구는 그의 카프 활동 이력과 연계하여 계급주의 문학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⁹⁾ 그의 소설에

6) 송영은 카프 출신 작가로서 조직 해체 이후에도 창작을 지속하며 여러 작품에서 공동체적 연대를 지향하는 문학 세계를 이어갔다. 임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협’과 현실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89-115면; 192-195면 참조.

7) 안희남은 카프와 같은 조직적 문학운동과는 거리를 두고, 『조선일보』, 『조광』 등에 단편을 발표하며 도시 소시민 지식인의 내면을 천착했다. 이강언, 「안희남 신변소설 연구」, 『우리말 글』 17호, 우리말글학회, 1999, 169-172면.

8) 카프 해체 이후 1930년대 중후반 문학장의 분화 및 전향 이후 작가들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임혁, 앞의 논문, 15-16면 참조.

9) 김성철, 「송영의 근대단편소설 〈아버지〉를 통해 살펴본 활자본 소설의 향유 양상」, 『고전과 해석』 10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113-146면; 임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협’과 현실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김종수, 「불은 성에 대항한 소설적 모색-송영의 후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20, 9-26면 등이 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의 구도는 주요한 분석 대상이었으나, 이 구도 안에서 ‘남겨진 자’가 수행하는 ‘읽기’ 행위의 서사적 기능과 주체 형성의 동력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안희남에 대한 연구는 그를 ‘신변소설’(身邊小說) 작가로 규정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소시민적 지식인의 불안, 권태, 퇴폐성, 그리고 반복적인 서사 구조에 주목해왔다.¹⁰⁾ 특히 그의 문학이 갖는 자기고백적 성격과 내면 심리 묘사의 탁월함은 꾸준히 조명되었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들이 강박적으로 수행하는 ‘쓰기’ 행위가 왜 소통의 실패와 자기 소외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탐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 ‘삽입 텍스트’는 ‘메타소설’이라는 범주와 중첩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메타소설이 소설 자체의 허구성과 글쓰기 행위를 반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면, 본고의 ‘삽입 텍스트’는 소설의 주 서사와 구분되는 독립적 형식의 텍스트(편지, 일기, 소설 속 소설, 시 등)가 서사 내부에 삽입되어 독자적인 서사 기능을 수행하는 보다 형식적인 층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을 통해 메타소설적 자의식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더라도, 삽입된 텍스트를 읽거나 쓰는 인물의 행위가 주체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개별 작가론에 머물렀던 송영과 안희남 연구를 ‘삽입 텍스트의 기능’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비교론적 관점으로 확장한다. 둘째, 형식주의적 분석을 넘어 1930년대 중후반의 역사적·문화사적 맥락 위에서 삽입 텍스트 기법의 의의를 규명한다. 셋째, 바르트의 독자론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론적 원용의 중심이 아닌 보조적

10) 임환모, 「안희남 논고」, 『한국언어문학』 27호, 한국언어문학회, 1989, 387-420면; 박신현, 「안희남 소설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10호, 문화와융합, 1989, 283-305면; 이강언, 「안희남 신변소설 연구」, 『우리말글』 17호, 우리말글학회, 1999, 169-191면 등이 있다.

분석 개념으로 활용하되, 작품이 보여주는 고유한 서사적 특징과 역사적 맥락을 우선시한다.

본고가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1967)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의 의도가 아닌 독자의 해석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고 주장하며 ‘독자의 탄생’을 선언했다.¹¹⁾ 이 개념은 저자가 물리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텍스트를 읽고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송영 소설 속 인물들의 독서 행위를 조명하는 참조점을 제공한다. 다만 바르트의 ‘독자’는 이론적·추상적 차원의 개념이고, 송영 소설 속 인물들은 어디까지나 서사 내부의 독자이다. 본고는 이 간극을 인정하면서, 바르트의 개념을 소설 인물의 독서 행위가 갖는 능동성과 창조성을 포착하는 이론적 참조틀로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한편, 프로이트가 『쾌락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1920)에서 제시한 반복강박 개념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트라우마를 재연하는 심리 기제이다.¹²⁾ 프로이트는 손자가 실패를 던졌다 당기며 ‘fort(없다)-da(있다)’를 반복하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아이가 어머니의 부재라는 고통을 놀이를 통해 능동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상실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안희남 소설 속 인물들의 반복적 글쓰기는 이 ‘포르트-다’ 게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의 글쓰기는 트라우마를 놀이로 전환하여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대면을 회피하면서 동일한 고통을 언어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왜곡된 반복강박’, 즉 극복을 향한 반복이 아니라 고통 속 공회전으로서의 반복으로 규정하며, 이 개념을 안희남 소설의 서사 논리를 포착하는 보조적 틀로 활용한다.

본고는 송영의 「아버지」, 「능금나무 그늘」, 「월과 선생」과 안희남의 「

11)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저자의 죽음」,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303-313면 참조.

12) 지그문트 프로이트, 강영계 옮김, 『쾌락 원리의 저편』, 지식은만드는지식, 2021, 16-20면 참조.

상자], 「번민히는 잔룩씨」를 주요 분석 텍스트로 삼는다. 2장에서는 송영의 작품에서 삽입 텍스트 읽기를 통한 ‘독자의 탄생’ 과정을 추적한다. 3장에서는 안희남의 작품에서 삽입 텍스트 쓰기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반복강박’의 양상을 분석한다.

2. 송영과 독자의 탄생적 읽기

송영의 소설에서 삽입 텍스트는 타자와의 소통을 복원하고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의 인물들은 떠나간 자가 남긴 텍스트(소설, 편지, 시)를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한다. 이러한 능동적 독서 행위는 바르트가 말한 ‘독자의 탄생’ 개념, 즉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주체라는 논의와 공명한다. 다만 바르트의 독자론은 텍스트 일반의 수용 이론이지 소설 속 인물의 심리를 직접 지칭하는 개념이 아님을 밝혀 둔다. 본고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 바르트의 논의를 송영 소설 내 독서 행위의 구조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조명하는 참조틀로 활용한다. 송영의 작품에서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타자 이해를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여는 능동적 실천이다. 이는 카프 해체 이후에도 그가 문학을 통해 공동체적 소통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핵심 장치다.

1) 「아버지」의 서사 구조와 독자의 능동성

송영의 단편 「아버지」는 소설가 아들 만식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 서주사가 아들의 원고를 발견하고 읽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소설의 서사적 깊이는 서주사가 접하는 두 개의 상이한 삽입 텍스트, 즉 미

완성 통속소설 「간난이」와 자전적 성격의 장편소설 「아버지」의 독서 경험이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파악된다.

서 주사가 먼저 발견하는 「간난이」는 ‘고무공장 다니는 간난이가 폐병이 들어’¹³⁾ 고통받는 전형적인 신파조의 소설이다. 과거 서점을 운영하며 야류 신소설을 써본 경험이 있는 서 주사는 이 원고를 직접 완성하여 팔 생각에 ‘일종의 창조적 정열’¹⁴⁾을 느낀다.

먼저 원고를 읽어보았다.

고무공장 다니는 간난이가 폐병이 들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판이나 그의 얼굴이 이쁘므로 어떤 동릿집 사내와 연애를 한다.

‘그 사나이는 전매국 다니는 직공인데 무슨 일엔지 잡혀가고 간난이는 인정 없는 자기 아비에 팔아먹히려고 한다.’

소설은 여기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서 주사는 입맛을 짹짹 다시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 녀석은 밤낮 쓴다는 것이 직공이고 잡혀가고 팔려가고 야단치고 하는 것뿐인가—. 요새 소설 쓴다는 놈은 보이게는 게 청승맞고 구저분한 가난뱅이밖에 없는 모양인가 봐.”

(중략)

“할 수 있나. 세속이 그러니까…… 가만있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칠까? 응, 가만있자, 딸을 팔아먹으려던 애비가 회개를 해서 눈물을 내고 잡혀갔던 동리 사나이는 무사백방이 되어 나와서 간난이와 혼인을 하고 간난이 병도 가을 하늘같이 말짱게 낫고, 게다가 돈벌이 자리도 생겨서 아들딸 낳고 일가 단란하게 지내간다……. 옳아 이렇게 마치겠다.”¹⁵⁾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그는 아들의 문체인 ‘하였다’, ‘했

13) 송영, 박정희 엮음, 「아버지」, 『송영소설선집』, 현대문학, 2010, 348면.

14) 송영, 위의 책, 347면.

15) 송영, 위의 책, 348-349면.

다'를 흉내 내려고 애쓰지만, 자신도 모르게 '하더라', '하였도다'와 같은 구식 문투를 쓰게 되는 한계를 절감한다.¹⁶⁾ 여기서 서 주사는 단순히 '읽는 자'에 그치지 않고 '쓰는 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의 쓰기는 원저자인 아들의 텍스트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다. 그는 텍스트의 의미를 창조하는 주체적 독자가 아니라, 저자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모방자'에 머무르며, 결국 구시대의 문체와 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쓰기에 실패한다. 이는 서 주사가 아직 아들의 세계, 즉 신식 문학과 그것이 담고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후에 발견한 장편소설 「아버지」의 독서 경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텍스트는 완결된 형태이며, 서 주사는 이를 이어 써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롭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의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아들은 서문에서 “나는 나의 ‘아버지’”¹⁷⁾에 대해 쓰겠다고 밝히고, 서 주사는 아들의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읽게 되는 독특한 상황에 놓인다.

서 주사가 장편소설 「아버지」를 읽는 과정은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에서 역설한 ‘독자의 탄생’의 한 양상으로 참조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텍스트의 통합은 ‘그것의 기원이 아닌 목적지, 즉 독자에게 있다.’¹⁸⁾ 이때 독자는 단순히 저자의 의도를 수동적으로 복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주체이다. 서 주사의 독서는 정확히 이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아들이 묘사한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을 읽으며 처음에는 세대 차이와 거리감을 느끼지만, 이내 그 텍스트를 거울삼아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기 시작한다.

더—그다음을 읽을 용기가 나지를 아니했다. 아들이 본 그의 지내간

16) 송영, 위의 책, 349면.

17) 송영, 위의 책, 353면.

18) 롤랑 바르트, 앞의 책, 303-313면 참조.

자태는 그의 눈앞에 어른어른 나타났다.

귀여워도 야단을 치고 안고 싶어도 상을 찡그리고 지내 온 자기의 과거를 보아왔다.

껴안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때에도 역시 엄부의 표정을 지키기에 무한히 애를 썼었다.

한데 웃고 한데 뛰어 놀고도 싶은 때가 많았으나 한 번도 ‘아버지’로서의 위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¹⁹⁾

이 장면에서 서 주사는 아들의 텍스트를 읽고 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재독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떠올리며,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또 자기와 자기 아들, 이 층층이 내려오는 부자의 사이는 언제든지 겨울 같은 모양에 잠겨만 있었다.”²⁰⁾고 통찰한다. 아들의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소환하는 이 순간, 서 주사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이동하며 저자와의 동일시를 경험한다. 독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행위가 아니라, 독자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확장하는 창조적 행위가 된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독서 경험의 완결은 서 주사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서주사는 노트북을 다시 헤쳐보고 다시 덮었다. 그리고 새카만 자기의 께짝에다 넣었다.

이 께짝은 돌아간 그의 아버지가 그중 귀애하던 청련靑蓮시집을 기념으로 보관해두는 께짝이다. 아버지의 청련시집 위에는 아들의 ‘창작각서’가 놓였다.²¹⁾

19) 송영, 앞의 책, 362-363면.

20) 송영, 위의 책, 363면.

21) 송영, 위의 책, 363면.

이 ‘헤치다.뒹다’의 반복적 행위는 독서 행위의 물리적 완결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의 유품(청련시집) 위에 아들의 원고(창작각서)를 ‘겹쳐’ 놓는 행위이다.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독서라는 경험을 통해 이룩된 새로운 형태의 연결과 화해를 상징한다.

서 주사의 독서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성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 장편소설 「아버지」 독서 이전에 서 주사는 아들의 글을 읽으며 “요새 젊은 축들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몰라”²²⁾라고 중얼거릴 만큼 세대 차이를 절감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읽은 후, 그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을 향한 시선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극적으로 확인된다.

“편지 들어가요.” 하는 배달부의 소리가 났다.

(중략)

생각은 좋으나 집안을 몰라보는 놈이라고 다소 괘씸하게 알던 생각은 눈같이 사라졌다.

차디찬 마루에서 떨고 앉아있는 아들의 고통을 뺏속들이로 멀리 느꼈다.

그리고 한편으로 훌륭한 놈, 잘난 놈, 유명한 놈 하는 소리 없는 부르짖음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왔다. 이제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보던 사랑이 화산같이 폭발이 되었다.

그가 품고 있는 아들의 편지에는 어떠한 말이 씌어 있을까?²³⁾

서 주사가 아들의 원고를 자신의 께쪽에 넣는 상징적 행위를 마친 직

22) 송영, 위의 책, 352면.

23) 송영, 위의 책, 364면.

후, “편지 들어가요”라는 배달부의 소리와 함께 실제로 아들의 편지가 도착한다. 이 편지의 도착은 독서라는 내면적 경험이 현실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서 주사는 편지를 품에 안고 “차디찬 마루에서 떨고 앉아있는 아들의 고통을 뺏속들이로 멀리 느꼈다.” 이제 그는 아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2) 여성 독자의 주체성: 「능금나무 그늘」과 「월파 선생」

「아버지」에서 나타난 독자의 능동성은 송영의 다른 단편들, 특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송영의 「능금나무 그늘」에서 남겨진 자들인 여동생들이 떠나간 자들인 큰오빠들의 편지들을 읽는 양상 또한 이러한 틀에서 분석할 수 있다.

「능금나무 그늘」에서 김침지의 칠남매 중 25살의 큰아들은 러시아로 간 지 삼 년이 되었으며, 셋째 딸인 옥녀는 18살이 되어 혼인을 준비하는 나이이다.²⁴⁾ 큰아들이 집으로 처음 부친 편지는 옥녀와 자신의 친구 박문성과의 혼인을 주선하는 내용이다.

옥녀가 인제는 처녀가 되었겠지요.

박문성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소자와 중학교에 같이 다니던 아이 말입니다. 왜? 가끔 집으로 놀러오던 문성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우편원으로 있고 또 매우 얹진한 청년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다른 데와 통혼이 되지 않았으면 문성과 혼인을 시키십시오.

문성은 모양도 낼 줄 모르고 길에서 여자를 만나면 도리어 길을 피하여 달아나는 ‘진국’입니다.

그리고 담배도 술도 모릅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신식

24) 송영, 위의 책, 320-321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나 보통 신식 청년과는 다르니!²⁵⁾

이 편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들의 ‘큰 뜻’을 신뢰하면서도 이러한 아들의 면모가 생활하는 데에는 ‘상국’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부모는 옥녀에게 이 주선을 말하지 않지만 결국 옥녀는 큰오빠의 편지를 읽고 박문성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큰오빠가 편지를 보내 동생 옥녀의 혼처를 정해준다는 내용은 표면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옥녀가 편지를 읽는 방식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다. 옥녀는 오빠의 편지를 통해 청년 박문성을 자신의 남편감으로 받아들인다.

옥녀의 품속에는 오빠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옥녀는 두 오빠 두 언니 중에 제일 숭배하고 있는 것이 큰오빠다.

오빠가 가진 큰 뜻이 어떤 것인 줄은 모르나 좋은 것인 줄만 알았다. 몹시 높고 거룩한 것인 것만인 줄은 알았다.

자기는 소학교 삼학년만에 안 다녀본 무식한 여자이었으나 남편만은 유식한 사나이를 만나고 싶었다.

(중략)

오빠 축들은 확실한 까마귀떼 중의 한두 마리의 학이며 봉황이었다.

(중략)

집안 살림살이보다 세상일에 더 흥미를 갖고 있다. 옥녀의 생각은 막연하나마 그의 큰오빠 축들에게 감화되어 있었다.

굶어죽어도 좋다. 고생을 하여도 좋다.

오빠 동무 같은 남편만을 만나면 그만이다. 내가 비록 무식해서 신여성과 같이 남편의 하는 일을 잘 이해하여주고 남편의 피로한 몸과 마음을 잘 위로만 하여주는 아내만이라도 되어보겠다—는 결심만은 그의 나

25) 송영, 위의 책, 326-327면.

이와 같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다.²⁶⁾

편지는 옥녀가 ‘오빠의 큰 뜻’에 편입되고, 이를 통해 ‘신여성’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우회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옥녀는 자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오빠를 존경하며, 오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생활고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옥녀의 편지 읽기는 오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해, 그와 닮고 싶은 자신의 욕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진다.

문성이는 오빠 동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자기 집으로 놀러 오던 청년이다.

(중략)

옥녀는 문성이가 오는 날이면 부끄러우나 기뻐다. 문성이는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나 자주자주 찾아온다. 반드시 책을 가지고 오빠와 간- 이야기를 하러 온다.

(중략)

오빠 같은 친구,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던 문성이, 유명하고 유식한 보통 청년보다 뛰어난 청년.

자기의 이상하는 남편감.

옥녀는 무지개와 꽃과 작은 새와 나비와 푸른 하늘과 맑은 물이 가득 찬 자기의 앞날을 눈앞에 그리고 혼자서 기뻐했다.

열입곱 살 먹은 처녀의 가슴에는 이 큰 뜻 가진 오빠의 친구 유명한 청년 장래의 남편의 황홀한 그림자가 짝, 차서 있었다.²⁷⁾

「능금나무 그늘」과 같이 「숙수치마」에서도 오빠가 편지로 동생의 결혼을 주선하는 삽입 텍스트가 등장하며 비슷한 기능을 지닌다. 여동생들이

26) 송영, 위의 책, 328-329면.

27) 송영, 위의 책, 320-321면.

편지를 읽는 과정은 표면적으로 큰오빠가 여동생의 반려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억압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과 여동생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동생들이 오빠의 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독해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욕망은 오빠의 권위에 기대어 있으며, 자신을 독립적 주체보다는 ‘뒷받침하는 아내’로 상상하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읽기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능동적 독서 행위임을 보여준다.

「월과 선생」의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남겨진 자인 숙희와 떠나간 박 선생이 주고받은 오언五言 또한 이러한 주체적인 독자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이 단편은 결말의 반전에 이르기까지 오래전 부인과 사별한 아버지 월과 선생의 관점에서 딸 숙희를 묘사한다. 월과 선생의 눈에 비친 숙희는 ‘가을 들판에 핀 조그만 들국화’ 같고, 열녀전을 읽으며 자란 정숙한 규중처녀로 인식된다.

조금 있더니 숙희는 찌그러진 양철대야에다 더운물을 떠가지고 나와서 주춧돌 위에다 놓는다.

(중략)

조그마한 처녀이다. 얼굴은 갈죽하고 두 눈은 움푹하다.

살결은 눈같이 희고 손목은 복통하게 짝어 논 듯하다.

(중략)

가을 들판에 핀 조그만 들국화 같다.

(중략)

얌전한 그러나 칼날 같은 그의 성격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²⁸⁾

숙희에게는, 일곱 살에 계몽편을 가르치고 아홉 살에 열녀전을 읽혔

28) 송영, 위의 책, 280-281면.

다.

열두 살 때에 시운법을 가르치고 열네 살 때에는 시전의 주남소남을 외우게 했다.

숙희는 총명하고 영악해서 한번 배운 것을 잊지를 않는다.

글씨의 획도 제법 번듯하고 오언과 룰도 꽤 이쁘게 읽어 논다.

그 외에 침선도 잘 하고 몸 처신도 잘한다.

이 동리는, 물론이지만 이 근처에는 숙희 처녀의 칭찬이 꽤 높았다.²⁹⁾

마지막 장면은 숙희와 사회주의 활동으로 체포된 박 선생이 남몰래 오언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버지, 박 선생이 왜 잡혀갔어요.”

“음 모르겠다.”

평생에 처음으로 물어보는 처녀 딸의 말대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왜? 규중처녀로서 외간남자의 소식을 물어보니? 하는 아버지로서의 할 말도 아니 나왔다. 숙희도 엄숙한 아버지의 앞에서 그 같은 소리가 언제 나오는 줄도 모르게 나왔다. 숙희의 품속에는 박 선생이 지어 보낸 오언 몇 구기 있었다. 반드시 박 선생의 품속에도 숙희 처녀의 오언이 품겨 있을 것이다.³⁰⁾

이 삽입 텍스트의 존재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구축된 숙희의 이미지를 단번에 전복시킨다. 편지는 유교적 질서의 감시를 피해 은밀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자, 억압된 여성의 욕망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균열의 증거가 된다.

29) 송영, 위의 책, 282면.

30) 송영, 위의 책, 316면.

3) 송영의 단편소설에서 삽입 텍스트의 의미

송영의 단편소설들을 종합해 볼 때, 삽입 텍스트와 그것을 읽는 행위는 그의 문학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모티프이다. 그의 작품에서 텍스트는 언제나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설을 읽으며 세대의 벽을 넘고, 여동생들은 오빠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인들은 시를 주고받으며 억압적 질서에 저항한다.

한편 「월과 선생」의 숙희는 앞의 두 작품 인물들과 구별되는 이중적 위치를 점한다. 그녀는 박 선생의 오언을 받는 독자이면서, 동시에 오언을 지어 보낸 작가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월과 선생」은 다른 두 작품과 다른 층위를 지닌다. 오언의 구체적 내용은 서사 속에 직접 제시되지 않지만, 그 삽입 텍스트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시선이 구축한 숙희 이미지를 전복하는 서사적 힘을 발휘한다. 이는 송영의 삽입 텍스트가 ‘읽기’와 ‘쓰기’의 경계를 넘나들며 주체의 복수적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송영에게 ‘읽기’는 고립된 주체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실천이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저자의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독점하는 대신, 각자의 욕망과 경험을 통해 텍스트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탄생한 독자’들이다. 이는 카프 해체 이후 직접적 정치 발언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개인들이 텍스트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가능성을 소설 속에 형상화하려 했던 송영의 서사적 응답이기도 하다.

3. 안희남과 반복강박적 쓰기

송영의 소설에서 ‘읽는 자’가 서사의 중심에 있고 독서가 타자와의 소통과 연대를 여는 실천으로 기능한다면, 안희남의 소설에서는 ‘쓰는 자’의 내면에 집중하며 글쓰기가 현실 도피와 자기 소외의 기제가 된다. 안희남의 인물들에게 텍스트는 타인에게 가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무한히 회귀하는 폐쇄 회로와 같다. 그의 인물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글쓰기 행위 자체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반복강박 개념을 참조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안희남 소설 속 인물들의 반복적 글쓰기는 프로이트의 ‘포르트다’ 게임이 목표포 하는 ‘능동적 극복’과는 거리가 있다. ‘포르트다’ 게임에서 아이는 반복을 통해 상실을 통제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안희남의 인물들은 글쓰기를 반복하면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소외가 심화된다. 이 점에서 안희남 소설의 반복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재연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공회전이라는 의미에서 ‘왜곡된 반복강박’이라 명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안희남 소설의 서사 논리를 포착하는 보조적 틀로 기능한다.

1) 「상자」의 서사 구조와 반복강박적 편지 쓰기

안희남의 「상자」에서는 ‘쓰는 자’인 주인공 ‘나’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나’는 아내의 예물을 몰래 팔아 자신의 향락을 위해 탕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세 통의 편지를 쓴다. 이 반복적인 글쓰기 행위는 앞서 정의한 ‘왜곡된 반복강박’의 전형적 사례이다.

주인공 ‘나’가 쓰는 세 통의 편지를 비교 분석하면, 그의 글쓰기가 어떻게 현실 개선에 실패하고 공허한 자기 반복에 머무르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첫 번째 편지는 주인공이 예물 몇 개를 예물 상자에서 꺼내가면서 아

내에게 원고지 위에 쓴 내용이다.

‘사랑하는 안혜여,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비녀와 가락지 꼭 일주일 이내에 찾아다 놓으리다. 남편의 이 같은 행동 과히 실망하지 마시고 부디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오.’³¹⁾

이 첫 번째 편지는 편지이기보다는 간단히 용건만을 적은 쪽지에 가까우며, ‘나’의 변명을 담은 짧은 쪽지에 불과하다. 서 주사의 능동적인 독서 경험과 달리, 「상자」의 편지는 부정적이며 현실도피적인 성격을 가진다. 서 주사의 독서 경험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한다면, 「상자」의 ‘나’의 편지는 아내를 직접 대면하지 못해 남기는 편지일 뿐이다.

또한 예물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선 ‘나’는 반복적인 행동을 취한다.

원편 손바닥에 어지간히 땀이 흐르도록 가락지를 만져 봤다가는 비녀를 쥐어 보고, 비녀를 들어보고 나서는 가락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혹시 지금쯤 안혜가 상자를 열어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의 편지도 읽었을 테고 자기의 두 가지 보물이 없어진 것도 알았으리라. 오죽 낙담하랴.

그러면 어찌되었을꼬. 만약에 할머니이나 어머니가 아시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다. 집안이 발끈 뒤집히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나를 찾아다니게 되거나 않을까. 불유쾌한 생각만을 되풀이하였다.³²⁾

‘나’의 반복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불유쾌한 생각만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나’는 예

31) 안희남, 「상자」, 이성천 엮음, 『초판본 안희남 단편집』, 지식음만드는지식, 2013, 29-30면.

32) 안희남, 위의 책, 30-31면.

물을 팔고 번 돈을 ‘습관’처럼 향락에 사용하는데, 이 또한 행동·생각·감정의 부정적 순환의 또 다른 예다.

우선 흥분한 정신을 진정하기 위해서 ‘바’로 찾아가서 시원한 맥주 몇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렇게 ‘바’나 혹은 이른바 티룸의 쿠션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아무 중대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나의 일상 버릇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³³⁾

‘아스팔트’를 슬슬 걸어 내려오며 지금의 나에게는 ‘넥타이’나 책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닐거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나는 벌써 견갑을 수 없이 돈을 낭비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우울하였다.³⁴⁾

이러한 ‘불유쾌한’ 행동·생각·감정의 순환으로 요약되는 ‘왜곡된 반복 강박’은 도금된 가짜 예물을 사서 상자에 넣는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암만 해도 겁이 나므로 종로 금은상으로 가서는 안해의 것과 모양이 비슷한 놋으로 도금 비녀와 가락지를 샀다. 우연히도 그것을 또한 왼편 포켓 속에다 넣고는 아까 아침때 모양으로 손으로 만졌다 났다 하면서 서성대었으나 별로 갈 데는 없고 집으로는 아직 돌아가기가 싫어서 다방 ‘멕시코’로 갔다. 나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누런 도금 비녀와 가락지가 결단코 순결한 것이 아닌 것같이 좋은 양복을 입고 모양 있는 모자와 넥타이, 비싼 구두를 신은 내 자신 역사가 이를테면 한 개의 가짜, 따져 보면 그야말로 정말 값어치 없는 존재인 것만 같아서 나의 가슴은 어느덧 감상적인 레코드 소리보다도 오히려 센터멘탈하였다.³⁵⁾

33) 안희남, 위의 책, 31면.

34) 안희남, 위의 책, 32면.

35) 안희남, 위의 책, 32면.

가짜 예물을 상자에 넣은 후, ‘나’는 첫 번째 편지를 찢고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나의 안해여 참 미안하오. 당신이 보아 단박 알겠지마는 이 상자에 들어 있는 보물 중에서 비녀와 가락지 두 가지는 도금을 하여 만든 가짜요. (중략) 물론 나의 허물 이루 변명키 어려우나 그러나 나의 현명한 안해여, 이 변변치 못한 남편의 행실을 너무 책망치 말고 그것을 따뜻한 사랑으로 알아주면 반값고 감사하겠소이다. (중략) 우리가 서로 연애를 하며 애정을 속살일 때 그것을 할머니은 반대하시지 않았소? (중략) 그런데 바로 그에게 밤 돈을 돌려준 박군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은 자기 안해의 금비녀와 가락지를 진당에 넣어 해준 것인데 별안간 그것으로 하여 그의 안해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중략)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도리는 없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아름다운 상자 속에서 당신의 귀중한 비녀와 가락지를 훔쳐간 것이요. (중략)

그대가 늘 하던 권고에 좇아 내일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나의 악습과 생활을 고치리다. 당신의 말대로 씩씩하게 사는 남자가 되오리다.³⁶⁾

표면적으로 두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 이것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 대면이 아닌 상황·타인·경제적 조건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다. 편지 쓰기는 순간적인 고통의 회피일 뿐, ‘나’는 약속한 것을 이행할 의지도 방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날도 나는 아침을 먹는 대로 부라사라 집을 나왔으나 의연 아무데도 갈 곳은 없고 자연 발 놓는 대로 어제와 같이 본정통으로 들어왔다.

36) 안회남, 위의 책, 34-37면.

(중략) 그러나 나의 마음은 우울하였다. (중략) 이처럼 살아 나가는 존재야말로 값어치 없고 누추하기가 흡사 도금 비녀, 도금 가락지 같은 것이라고 오늘은 더 한층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다.³⁷⁾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은 외출하고 없다. 상자 속에 나머지 장신구와 그의 두 번째 편지는 사라지고 가짜 금비녀와 가락지만 남겨져 있다. 그는 도금 예물을 꺼내가며 세 번째 편지를 쓴다.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해여, 처음 편지는 잘 읽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해줄 줄로 믿소. 지금 나는 상자 속에서 도금 비녀와 도금 가락지를 다시 훑쳐가요. (중략) 나는 곧 이번 일을 할머님께 자백하는 동시에 당신의 일상 충고대로 나의 악습과 생활을 개선키 맹세하고 또한 당신이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곤경도 피워 주리다. (중략) 나는 오늘 어지간히 번민하였고 지금 이 기회를 타서 제법 신통한 결심을 하는 것이오. 이 상자 속에서 가짜 금비녀와 가짜 금가락지를 축출하는 것처럼 나는 내 자신 속에서도 그와 같은 불순·허위·오예 이런 것을 청산하오. 앞으로는 술 먹지 않고 시간과 금전을 쓸데없이 버리지 않고, 거리에서 씩씩하게 활동하고 있는 남아가 되오리다.³⁸⁾

결국 ‘상자’ 속 예물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나’가 남기는 편지의 글자만 점점 늘어간다. 글의 양은 늘어나지만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안희남에게 글쓰기가 소통과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의 부채를 언어로 매우려는 공회전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7) 안희남, 위의 책, 36-37면.

38) 안희남, 위의 책, 39-40면.

2) 「번민하는 잔룩씨」의 메타픽션적 구조

안희남 문학의 반복강박과 자기 소외는 「번민하는 잔룩씨」에서 더욱 복잡하고 심화된 양상으로 변주된다. 「상자」의 주인공이 ‘쓰기’를 통해 현실을 회피한다면, 「번민하는 잔룩씨」의 ‘나’는 ‘읽기’를 통해 현실을 왜곡하고 파괴한다. 그는 「라뮤즈」라는 잡지에 실린 소설 속 인물 ‘잔룩’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사하여,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라뮤즈」의 「번민하는 잔룩씨」 소설속에도 남편과 안해와 안해의애인 세 사람이서 수건으로 눈을가리고 찾는 술래잡기하는 대목이있는데 가다가 잔룩이 술래가되어 눈을가리면 나머지 두사람이 서로 눈우습을 치고 빨간 혀를 쭉 내밀어 잔룩을 놀리며 나중에는 눈가린 남편의앞에서 대담하게 돌이 열사안고 입까지 마춘다. 임순이와 영식이도 내가 돌아스거나 못보는 사이 비웃고 혀빠다으로 놀리고 저이들끼리 만나서는 입술과 입술을대였을 것이다.³⁹⁾

「라뮤즈」의 소설속에서 잔룩이 기영고 안해를 도적마진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 할사록 내가 당하고있는일도 꼭 그와같이 사실인것만같다.⁴⁰⁾

이 소설은 소설 읽기가 현실 해석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해석된 현실이 다시 소설의 내용을 증명하며, 결국 소설이 현실을 규정하게 되는 메타픽션적 순환 구조를 띤다. 흥미로운 지점은 주인공이 이와 같이 현실과 소설을 혼동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반복적인 생각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점이다.

39) 안희남, 「번민하는 잔룩씨」, 근현대문학 출판사, 2010, 3면.

40) 안희남, 위의 글, 3면.

어느때는 안해를 위하는마음으로 순이는 그럴리없다 이렇게 생각을 돌려먹고 내가 입대껏 가졌든 온갖 의심을 버릴라고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헛된수작이었다. 한번 그 소실을 뒤푸리하고 잔룩의일을 회상하면 나의 가슴의 덜컥 내려안으며 다시 절망하는 것이다. 허덕허덕 번민하는 마음속에서 일즉이 안해에게 품었던 열가지 백가지의 의심이 그대로 의심으로만 점점커져서 나의 전부를 덮어버린다.⁴¹⁾

「번민하는 잔룩씨」가 보여주는 반복강박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의 심리를 넘어 세대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론적 불안으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그것뿐아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때부터 가지고있는 한 개 수수껍기에 항상 번뇌를하고 있다. (중략) 내가 지금 내안해를 의심하고 못믿는것처럼 옛날 나의아버님도 그렇지않았었나 하는생각이다. 즉 나의어머님도 임순이와같이 남편의 애인을따로히든 「크리쓰티누」가 아니었나 하는거시다.⁴²⁾

나의 아버님과 나와 잔룩과 세사나희가 일제히 사랑하는 안해는 남에게 도적맞은 가없는 사람임에도 틀림없다. (중략) 아아 나는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런 것 같다. (중략) 생각하면 나는 잔룩보다도 더하다. 잔룩에게는 안해를 잃어버린 번민만이 있지만 나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삼대를통하여 불쾌한 감정이 용소슴친다.⁴³⁾

할아버지-아버지-나-아들로 이어지는 이 ‘가짜’의 계보학은 개인의 상실을 과거-현재-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트라우마의 대물림으로 확장

41) 안희남, 위의 글, 3면.

42) 안희남, 위의 글, 3면.

43) 안희남, 위의 글, 4면.

시킨다. ‘나’의 망상적 반복강박은 소설 말미에 도착한 영식의 편지에 의해 강제 종료된다.

보니까 영식이 한테서 온것이였다. 우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하고 모든 것을 임순이에게서 들어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임순이와 스시를 먹고 인첸엘가고 입마춘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러나 번민하는 잔룩씨는 내가 아니라 영식이 자기라고하고 그까닭은 임순이가 나의안해가 되기전에 먼저 자기의 안해였다는 것 영식은 처녀 임순이와 결혼했던 전 남편이었다고하고 (중략) 번민하는 잔룩의 정말 번민은 자기만이 안다고 하고 마지막에가서 사랑하는 나의안해 임순이를 잘 위해달라고 한 사연이였다.⁴⁴⁾

이 폭로에 대한 ‘나’의 마지막 반응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이 ‘진짜’임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오히려 ‘다방과 안해와 아들을 송도리채 영식에게로 넘겨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도착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그에게는 안정된 ‘진짜’의 정체성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번민하는 ‘가짜’의 상태가 더 익숙하고 본질적인 실존의 양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3) 안희남의 단편소설에서 삽입 텍스트의 의미

송영의 문학에서 삽입 텍스트의 읽기가 소통과 회복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었다면, 안희남의 문학에서 삽입 텍스트의 쓰기는 자기 소외와 실존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기제이다. 그의 인물들에게 텍스트는 타인에게 가닿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무한히 회귀하는 피비우스의 띠와 같다.

44) 안희남, 위의 글, 5면.

이러한 글쓰기의 실패는 안희남 개인의 특수성이 아니라, 카프와 같은 조직적 이념의 지지대도 없이 파편화된 개인으로 내던져진 1930년대 중후반 식민지 도시민 지식인의 실존적 조건을 반영한다. 집단적 연대의 언어를 처음부터 갖지 못했던 안희남의 인물들은 글쓰기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자체를 상실한 채, 언어의 공회전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이것을 안희남 문학의 한계로 평가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그는 언어와 현실 사이의 괴리,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무력감, 근대적 자의식의 병리적 증상 등 1930년대 중후반 식민지 지식인이 처한 실존의 조건을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집요하게 형상화했다. 그의 문학은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 구원이 불가능한 시대의 내면 풍경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당대의 현실에 응답했던 것이다.

4. 나가며

본고는 1930년대 중후반 한국 단편소설의 주요 특징인 삽입 텍스트 기법을 중심으로, 송영과 안희남의 문학에 나타난 주체 구성의 두 가지 상이한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송영과 안희남은 삽입 텍스트라는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1930년대 중후반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성 문제를 다루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송영의 소설에서 서사의 중심은 텍스트를 ‘읽는 자’에게 있다. 그의 인물들은 저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삶과 관계를 재구성한다. 여기서 텍스트는 단절된 개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이자 ‘소통’의 도구로 기능한다. 독서 행위는 자기 ‘성찰’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관계의 ‘회복’과 ‘타자와의 연대’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간다. 「월과 선생」의 숙회처럼 독자이자 동시에 작가로 기능하는 인물의 경우, 삽입 텍스트는 주체의 복수적 능동성을 드러내는 장

치로 작동한다.

반면 안희남의 소설은 텍스트를 ‘쓰는 자’의 내면에 집중한다. 그의 인물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글쓰기 행위 자체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텍스트는 현실을 ‘회피’하고 고통을 ‘반복’하는 심리적 알리바이로 전락한다. 이러한 글쓰기는 주체를 성찰로 이끌지 못하고, 끝없는 ‘강박’과 자기 ‘소외’의 악순환을 낳는다. 결국 그의 인물들은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고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라는 폐쇄된 세계 속에 갇히고 만다.

이러한 두 작가의 상이한 방향성은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카프 출신이었던 송영은 1935년 조직 해체라는 정치적 좌절을 겪은 후에도, 문학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이 독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은, 직접적인 정치 투쟁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고뇌와 희망을 반영한다. 이에 반해 안희남은 카프와 같은 조직적 이념의 배경 없이, 식민지 도시의 소시민 지식인으로서 겪는 실존적 무력감과 불안을 정직하게 응시한다. 그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소통의 실패와 자기 파괴적인 반복강박은, 어떠한 거대 담론에도 기댈 곳 없이 파편화된 개인으로 내던져진 당대 지식인의 실존적 조건을 고통스럽게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송영의 ‘연대를 향한 낙관’과 안희남의 ‘실존에 대한 비판’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체성의 위기에 응답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 했던 두 개의 정당하고 진실한 경로였다. 삽입 텍스트는 1930년대 중후반 문학에서 단순한 서사 기법을 넘어, 카프 해체 이후 식민지 지식인의 분열된 주체성을 탐구하는 핵심적인 장치였다. 송영이 텍스트를 통해 ‘타자를 향한 길’을 모색했다면, 안희남은 텍스트 속에 갇힌 ‘자신을 향한 감옥’을 그렸다.

송영과 안희남의 사례를 통해 본 1930년대 중후반의 삽입 텍스트 기법은 한국 문학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1930년대 중후반 문학장에서 삽입 텍스트의 부상은 카프 해체 이후의 정치적 공백과 일제의 검열 강화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작가들이 찾아낸 필연적인 서사 전략이었다. 검열의 압제 속에서 작가들은 삽입 텍스트라는 액자 구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등장인물의 목소리로 대체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표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둘째, 삽입 텍스트는 단순히 검열 회피를 위한 수단을 넘어, 서사 실험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소설 속에 또 다른 텍스트를 삽입하는 방식은 서술 시점을 다각화하고,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문하며,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유도하는 등 다층적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셋째, 1930년대 중후반에 활발하게 시도된 이러한 기법은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메타픽션, 액자소설의 전통에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두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몇 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기에, 이들의 전체 작품 세계로 논의를 확장하지 못했다. 둘째, 동시대에 유사한 기법을 활용했던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일본 모더니즘 문학이나 서구 모더니즘 문학과와의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1930년대 중후반 한국의 삽입 텍스트 기법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추적하는 작업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송영, 박정희 엮음, 『송영소설선집』, 현대문학, 2010.
 안희남, 「번민하는 잔룩씨」, 근현대문학 출판사, 2010.
 안희남, 이성천 엮음, 『초판본 안희남 단편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3.

2.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2.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지그문트 프로이트, 강영계 옮김, 『쾌락 원리의 저편』, 지식올만드는지식, 2021.

3. 논문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 양식 연구(1)-근대 서간의 형성과 양식적 특징」, 『민족문학사연구』 39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57-89면.
 김성수, 「근대적 글쓰기로서의 서간(書簡) 양식 연구(2)-근대 서간텍스트의 역사적 변천과 문학사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4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137-163면.
 김성수, 「근대 초기의 서간(書簡)과 글쓰기교육-독본·칙독·서간집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161-190면.
 김성수, 「근대 서간(書簡)의 매체별 존재양상과 기능」, 『현대문학의 연구』 4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85-121면.
 김성철, 「송영의 근대단편소설 〈아버지〉를 통해 살펴본 활자본 소설의 향유 양상」, 『고전과 해석』 10호, 고전문학한문학회, 2011, 113-146면.
 김종수, 「불온성에 대응한 소설적 모색-송영의 후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20, 9-26면.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사적 영역의 성립 및 근대적 개인의 탄생 그리고 편지 형식 소설과의 관련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351-381면.
 박신현, 「안희남 소설연구」, 『한국문화융합학회』 10호, 문화융합, 1989, 283-305면.
 안미영·김화선, 「이태준 장편소설에 나타난 ‘편지’의 기능과 한계」, 『어문연구』 54집, 어문연구학회, 2007, 275-295면.
 이강언, 「안희남 신변소설 연구」, 『우리말글』 17호, 우리말글학회, 1999, 169-191면.

- 임환모, 「안회남 논고」, 『한국언어문학』 27호, 한국언어문학회, 1989, 387-420면.
- 임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과 현실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 장인수, 「1920년대 ‘편지’의 배치와 감수성의 문학」, 『한민족문화연구』 42호, 한민족문화학회, 2013, 437-470면.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Subject Formation
through Inserted Text
– Focusing on the Short Stories of Song Young and Ahn
Hoe-nam

Yoo, Chaeyeong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differing aspects of subject formation in the literature of Song Young and Ahn Hoe-nam, focusing on the inserted text technique in Korean short stories of the mid-to-late 1930s. In Song Young's novels, inserted texts function through the act of 'reading' to restore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construct narratives of solidarity oriented toward relational recovery. His characters actively reconstruct the meaning of texts in the absence of the author, embodying 'the birth of the reader.' In contrast, Ahn Hoe-nam's novels form narratives of isolation through the act of 'writing,' deepening self-alienation and escape from reality. His characters exhibit the pattern of 'repetition compulsion,' compulsively repeating the act of writing itself rather than resolving real problems.

This paper utilizes Roland Barthes' reader theory and Freud's psychoanalysis as supplementary analytical tools, while centering the discussion on narrative analysis of the texts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colonial Joseon in the 1930s. The primary texts analyzed are Song Young's "Father," "Under the Apple Tree Shadow," and "Master Wolpa," and Ahn Hoe-nam's "The Box" and "The Troubled Jeanluc."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reveals that inserted text was a dynamic site that both

constructed and deconstructed the subjectivity of colonial intellectuals in the mid-to-late 1930s, and illuminates the spectrum of literature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KAPF from multiple dimensions.

Key words: Inserted Text, Song Young, Ahn Hoe-nam, Birth of the Reader, Repetition Compulsion, 1930s Novel

투 고 일: 2026년 2월 9일

심 사 일: 2026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23일

수정마감일: 2026년 3월 28일